

## 사이다이지 절(西大寺, 서대사)

‘서쪽의 큰 절’이라는 뜻의 사이다이지 절은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부처님께 기원하기 위한 장소로, 쇼토쿠 천황(713~770년)이 발원하여 헤이조(平城: 나라의 옛 이름)에 있는 천황의 거처인 고쇼 서쪽에 건립되었습니다. 한편, 고쇼 동쪽에는 쇼토쿠 천황의 부친인 쇼무 천황(701~756년)의 발원으로 도다이지 절(東大寺, 동대사: 동쪽의 큰 절/ 나라의 대불이 모셔져 있음)이 창건되었는데, 이 도다이지 절은 고쇼를 사이에 두고 사이다이지 절과 대칭을 이루도록 배치되어 있습니다. 사이다이지 절의 건설 공사는 765년에 시작되어 78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. 이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된 데에는 그 규모가 거대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. 약 48ha에 이르는 부지에 웅장한 2개의 탑을 포함한 110여 채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지만, 안타깝게도 헤이안 시대(794~1185년)에 끊이지 않고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당시 건축물의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. 그러나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년) 중기에 에이손 쇼닌(1201~1290년)이 사이다이지 절을 밀교와 계율에 대해 배우는 진언율의 도량으로 다시 부흥시켰습니다. 그는 매우 열정이 넘치는 불교 교사였는데, 에이손이 확립한 사이다이지 절의 전통은 그가 사망한 지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. 사이다이지 절은 오늘날까지 진언율종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심지로 남아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장으로도 자리잡고 있습니다.